

논문투고일 : 2007. 9. 30.
심사완료일 : 2007. 12. 6.

동서양 박물관 명칭의 어원과 그 교육적 함의

서 원 주

영국 런던대학교 박사과정

-
- I.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과 이 연구의 필요성
 - II. 어원으로 본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
 1. 서구에서 성립된 '박물관(museum)'이라는 명칭
 2. 동양에서 성립된 '박물관(博物館)'이라는 명칭
 - III. 박물관교육의 이론과 실제
 - IV. 결론
-



동서양 ‘박물관’ 명칭의 어원과 그 교육적 함의

서 원 주

I.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과 이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에서 ‘박물관(博物館, museum)’이라는 명칭의 성립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박물관의 정의를 통하여 그 교육적 역할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박물관에 대한 정의는 각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는 1946년에 유네스코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내린 정의이다. 이 협회는 그 정관에서 박물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¹⁾

박물관은 연구 및 교육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가진 환경의 물질적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보존, 연구, 전달, 전시하여 사회와 그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중에게 공개된 비영리적인 영구기관이다(ICOM, 2001: 2).²⁾

1) 국제박물관협회는 1946년 이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박물관의 정의를 7차에 걸쳐 개정했으며, 2007년 현재 2001년에 개정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2) A museum is a non profit making,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and open to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for purposes of study, education and enjoyment, material evidence of people and their environment.

국제박물관협회의 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박물관의 필수조건, 기능 그리고 목적이 그것이다. 즉, 이 정의에서는 박물관의 조건으로서 '대중에게 공개', '비영리' 및 '영구기관' 이라는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위의 정의에서 "수집 및 보존, 연구, 전달, 전시"라는 박물관의 기능은 "연구 및 교육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박물관의 목적에 필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연구'를 넓은 의미에서의 교육적 행위라고 본다면 박물관은 '교육과 즐거움'을 사회에 제공하는 것을 그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그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다른 어떤 기능보다도 우선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박물관들이 그 기관의 정체성을 지식의 생산과 전파를 위한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의 경우 그 안내책자에 "박물관은 넓은 의미에서 배움의 장소이며, 모든 직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보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대영박물관 저·서원주 역, 2004: 8). 또한 미국의 스미슨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ion)의 경우 박물관 설립을 주도한 제임스 스미슨의 말을 빌려 그 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스미슨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지식을 증진하고 전파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한다."³⁾

그러나 일반인의 인식은 물론이고 박물관학과 관련된 연구에서조차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박물관을 넓은 의미에서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교육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준거를 제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동서양에서 '박물관(博物館, museum)'이라는 명칭이 성립되는 과정에 대해 어원적으로 접근하여 그 명칭에 나타난 교육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어원으로 본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

1. 서구에서 성립된 '박물관(museum)'이라는 명칭

박물관(museum)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곳은 고대 그리스였다. 고대 그리스에 존재했던 무지온(Mουσειόν)⁴⁾이란 장소는 그리스어로 '무세(Mούσαι)'라고 불린

3) 스미슨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si.edu/about/mission.htm>) 참조.

뮤즈(Muse) 여신들을 위한 신전이였다(Jones 1940). 초기의 뮤즈 여신들은 일반적으로 음악과 예언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헤시오스가 9명의 뮤즈 여신을 명명하면서 점점 그 역할이 분화되어 후기에는 문학과 예술, 과학 등 9개 분야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인식되었다(James 2003). 따라서 문학과 예술을 관장하는 뮤즈 여신들을 위한 신전인 무지온은 예술품의 관람이나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스에서 뮤즈 여신들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였던 아이스키네스⁵⁾는 기원전 345년에 그의 연설 “티마르쿠스에 반박함”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그들은 학교축제의 조정자로서 학교에서 열리는 뮤즈 여신들의 축제와 레슬링학교에서 열리는 헤르메스 신의 축제를 주관한다.”(Aeschines 1919 [345 BC]: 11). 여기에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뮤즈여신들의 축제가 학교 안에서 열렸으며 따라서 뮤즈여신을 위한 신전인 무지온 역시 교육과 관계가 있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느 학교든지 이를 ‘뮤즈 여신의 성소(Mouseion)’라고 부를 수 있었다(Hornblower and Spawforth 2003). 그러므로 서구에서 박물관(museum)이라는 용어는 그 시작부터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의 역사에 대하여 논의할 때 그 시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관은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Mouseion)이다. 예를 들어 버코(Burcaw, 1997: 25)는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은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박물관과 같았다.”⁶⁾고 주장하고 있다. 버고(Vergo, 1989:1) 또한 “박물관의 기원은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라고 기술하며 그 출전을 알렉산더(Alexander 1996[1979])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알렉산더(Alexnader 1996[1979])는 무지온을 소개하면서 그 중 ‘가장 유명한 예’로서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을 들었을 뿐 이를 직접 박물관의 기원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국내의 박물관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는데, 이인숙(2005: 222)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을 “박물관의 효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난영(2006: 64)은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는 박물관의 적극적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은 … 그 곳을 『Museion』이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보

4) 고대 그리스의 ‘Μουσειόν(Mouseion)’에 대한 한국어 표기는 현재 ‘무제이온’, ‘무제이웅’ 등 여러 가지로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그리스어 발음대로 읽어 ‘무지온’이라 부르기로 한다.

5)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아이스키네스(Aeschines)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철학자 아이스키네스 소크라티쿠스(Aeschines Socraticus)와는 별개의 인물이다.

6) 한국어 번역은 양지연(2001: 33)이 번역한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에서 인용하였다.

아(2000: 38)는 “오늘날 우리가 정의하는 박물관의 고전적인 기능을 처음으로 갖추었던 곳은 … 뮤제이온 알렉산드리아(Museion of Alexandria)를 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언급된 여러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적극적 기능”이나 “고전적 기능”이 무슨 의미인지 별도의 정의나 논의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되었던 무지온의 성격이나 기능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생략한 채 이를 박물관의 효시로 추정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유명도에 비추어 볼 때 박물관학에서는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에 대해 그다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무지온에서 예술품의 전시행위 등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은 문헌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이 또한 뮤즈 여신의 이름을 딴 기관이므로 그리스의 다른 무지온들처럼 예술과 관련된 행사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추리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된 연구에서 단언하는 바와는 달리 어원적으로 볼 때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은 실제로 그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기관도 아니었으며, 설립시기를 따져 보아도 이를 최초의 박물관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전(古典) 그리스 시대에도 그리스에는 뮤즈 여신의 신전은 물론 다른 여러 교육기관들이 이미 무지온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플라톤의 ‘아카데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시움’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古典) 그리스 시대 이후 알렉산더 대왕이 이룩한 제국은 그의 사후에 세 개의 왕국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미(Ptolemy)장군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웠다. 프톨레미 1세는 기원전 280년경 자신의 통치 아래 있던 알렉산드리아에 ‘무지온’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였다. 이 무지온은 헬레니즘 시대의 석학들이 모여 연구를 하는 일종의 연구소 또는 학사원으로서 기능을 주로 하였다(Hornblower and Spawforth 2003; Woodhead and Stansfield 1994; Bazin 1967). 이 무지온에서 연구를 수행했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유클리드나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석학들을 들 수 있다(Robinson 1929). 이 무지온에는 두 개의 도서관이 딸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무지온의 부속건물로서 같은 장소에 지어졌고, 다른 하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신전 안에 위치하였다(Casson, 2001: 34).

따라서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은 역사적으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최초의 기관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알렉산더(Alexander, 1996: 6)는 ‘최초’라는 표현대신에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무지온은 …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되었고…”라고 정확히 기

술하고 있다. 물론 그리스 문명권을 통하여 가장 거대한 연구기관이었으며 50만 여권에 달하는 책이 소장되어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은 그 유명도와 역사적 의의를 고려할 때 박물관의 역사에서 다룰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무지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다른 기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원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을 최초의 박물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최석영(2004: 15)의 경우는 “박물관의 ‘기원적’ 형태를 어원이 유사하다고 하여 그리스의 무세이온에서 찾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그와 같은 기관에 대한 명칭으로서 심슨(M. G. Simpson)과 요시다(吉田憲司)를 인용하여 “유사박물관” 또는 “박물관의 고형태(古形態)”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어 ‘무지온’은 로마시대에 이르러 라틴어로 ‘무제움(Museum)’⁷⁾이라고 번역되었다(Lewis 1879: 1179). 그러나 로마시대의 문헌에 등장하는 무제움은 ‘철학적 토론을 나누는 저택’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박물관과는 기능적으로 상이한 장소였다(Bazin 1967). 다만 무제움이 철학적 토론의 장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곳 역시 넓은 의미에서 교육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로마시대의 박물관에 대해 남아 있는 기록은 많지 않다. 이에 대하여 바쟁은 “로마시대에 박물관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로마 전체가 박물관이었다.”라고 옹호하고 있으나(Bazin 1967: 23), 사실 이는 루이스의 지적대로 로마시대 사람들의 주관심사가 문화적인 면보다도 경제적인 면에 치우쳤던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Lewis 1992). 대신에 로마 시대에 ‘기능적’으로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한 기관은 신전이였다. 다신교 사회였던 초기 로마는 제국의 여러 지역에 존재했던 신들을 받아들여 무수한 신전을 세웠는데 이 신전에는 여행자가 먼 곳에서 가져왔거나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진기한 물품들이 기증되어 전시되었다(Lewis 1992). 따라서 로마시대의 무제움(Museum)은 박물관(museum)의 기능적 효시라기보다는 그 명칭의 어원적 기원의 일부로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진성(2004: 4)은 서구에서 박물관(museum)이라는 용어가 묘지(mausoleum)와 어원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박물관에 대한 인상을 “이 그늘진 공간에는 마치 방부처리된 미라처럼 ... 향아리나 동검 또는 그림과 조각품들이 고이 잠들어있다.”고 기술하고 ‘museum’이라는 용어가 라틴어에서 비롯된 용어 ‘mausoleum’과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은 그리 놀랄 일이 못된다. 그것은 ‘묘지’를 의

7) 그리스어의 무지온(Μουσειόν)은 라틴어로 무제움(Museum)과 무지움(Musium), 두 가지로 번역되어 쓰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일반적인 용어인 ‘무제움’을 선택하기로 한다.

미한다.”고 하였다(전진성, 2004: 4). 그러나 ‘museum’과 ‘mausoleum’은 그 철자가 비슷하기는 해도 결코 어원적으로 ‘친족관계’에 있지 않다. ‘museum’이 뮤즈여신을 위한 고대 그리스의 신전임에 반해 현재 영묘(靈廟)나 능(陵)의 뜻으로 쓰이는 ‘mausoleum’은 원래 기원전 4세기 아나톨리아 지방 카리아의 군주였던 마우솔로스(Mausolus)를 위해 지어진 영묘(靈廟)의 이름이었다. 따라서 ‘museum’과 ‘mausoleum’은 역사적으로 각각 신전과 왕릉으로서 다른 기능을 가진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명칭에서도 ‘um’이라는 라틴어 명사형 어미로 끝난다는 점 이외에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어원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⁸⁾

물론 전진성(2004)이 ‘museum’과 ‘mausoleum’이라는 단어의 예를 통하여 박물관을 묘지에 ‘비유’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이다. 그는 “박물관은 죽은 자들과 잠시나마 면담할 수 있는 곳이다. 무뚝뚝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우리 쪽에서 갖은 제스처를 동원해 말을 걸고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매(靈媒)”로서의 큐레이터의 역할을 역설했다(전진성, 2004: 4 6). 이렇게 박물관을 묘지(mausoleum)에 비유하는 관점은 위트콤(Witcomb 2003)의 저서에서와 같이 과거에 천착하고 지식인 중심적인 태도를 지닌 일부 박물관이 현시대의 대중들과 괴리되어 그 소통이 단절되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경우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일부 박물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고루성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지 박물관과 묘지의 어원적 연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지온이나 무제움 같은 박물관과 어원적으로 연결된 고대 유럽의 기관들은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리스 이후 로마시대에 약화된 ‘박물관’의 역할은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박물관이라고 명명된 기관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중세에 이르러 유럽에서 박물관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버코(Burcaw 1997: 26)는 “로마의 신전에 수집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의 멸망 이후 수백년 동안 박물관이라는 존재는 사라져 버렸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사실 로마의 멸망 이후에 르네상스시대 이전까지 유럽에서 ‘Museum’이라는 명칭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므로 박물관의 역사를 어원적으로 한정하면 이런 주장은 그다지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로마시대의 무제움(Museum)은 박물관이 아니었고 그 대신 신전이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세에도 고대의 신전과 같이 박

8) 더구나 원래 ‘museum’과 ‘mausoleum’은 라틴어 자체에서 기원된 용어가 아니라 모두 고대 그리스 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용어들이다.

물관의 기능을 수행한 기관이 있었으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중세에는 종교시설인 교회와 수도원에서 성유물과 예술품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 전시함으로써 박물관이 가진 기능을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이 박물관의 역할을 한 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시설의 이용양태를 보더라도 귀중한 성유물을 보기위해 성지순례를 했던 중세의 기독교 신자들과 유명 미술작품을 보기위해 세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찾아다니는 현대의 관람객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기 힘들다. 따라서 중세의 교회와 수도원은 종교시설이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했던 로마식 전통에 충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박물관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던 무제움(Museum)이라는 라틴어 용어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예술작품의 수집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잊혔던 그리스, 로마의 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난 르네상스 시대에는 귀족들과 부호들이 고대의 예술작품을 수집하고 새로운 예술창작을 적극 후원하고 나섰다(Burcaw 1997). 이러한 당시 상류층이 자신의 부와 취향을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저택에 예술품 등의 수집품을 모아서 전시하였는데 이를 초기적인 형태의 사설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신전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었던 점에 비해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들의 예술품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의 관람객에만 개방되었다. 그러나 중세와 르네상스시대에 유럽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한 기관들이 그 수집품을 전시하여 공개하였다는 점은 현대 박물관의 기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부인에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이들 역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애쉬몰 등이 옥스포드 대학에 기증한 수집품을 바탕으로 1683년에 애쉬몰 박물관(Ashmolean Museum)이 설립됨으로써 드디어 'museum'이라는 용어가 서구에서 현재의 기준에 부합하는 박물관이라는 기관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Burcaw 1997). 더구나 17세기 이래 유물과 예술품의 공개적 전시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은 이후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이나 루브르 박물관(Musée du Louvre) 등 근대박물관을 통하여 교육적 역할과 기능이 분명해 졌으며, 이후 그 역할을 더욱 확장해 왔다.⁹⁾ 따라서 서구에서 나타나는 박물관(museum)이라는 명칭을 지닌 기관들은 초기부터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9)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에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이 축소된 시기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거시적인 시각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최근 몇 세기에 걸쳐 확대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교육적 역할이 점점 강조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라틴어가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Museum'이란 라틴어 용어가 유럽 각 지방의 언어에 영향을 주었는데, 영어의 '뮤지엄(museum)' 프랑스어의 '뮈제(musée)' 독일어의 '무제움(Museum)' 그리고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의 '무제오(museo)'가 그 예이다.

2. 동양에서 성립된 '박물관(博物館)'이라는 명칭

박물관(博物館)이라는 명칭은 현재 한·중·일 세 나라에서 같이 쓰이고 있으나 그 시초는 일본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이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난영(2006: 103)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1866년에 지은 『서양사정(西洋事情)』을 그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 책은 후쿠자와가 1862년에 유럽으로 파견된 사절단에 통역으로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저서이다. 그러나 이미 1860년에 일본이 미국으로 처음 파견한 사절단이 남긴 보고서에서 '박물관(博物館)'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Yanagawa, 1937: 58), 강민기(2002: 38)의 주장대로 1860년의 구미사절단 기록을 그 시초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시 미국을 방문한 일본 사절단은 워싱턴시의 특허국(Patent Office)과 스미슨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e)을 관람하였다. 이때 특허국에는 세계 각지의 의복과 신발, 동식물 표본, 가구 등이 다수 전시되어 있었는데, 사절단은 이 특허국을 가리켜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강민기 2002; Yanagawa 1937).¹⁰⁾

이후 1866년에 발간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이 발간 당시 20만부 이상이 팔린 사실로 보아(강민기 2002: 40), 이 책이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일본에서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1872년에 발간된 『英和大譯辭書』에서 'museum'이라는 단어가 '博物館'으로 번역되어 사전에 실리게 됨으로써(강민기 2002: 40), 박물관이 일반적인 용어로서 일본어에 자리를 잡은 듯하다.

강화도 조약 이후 1876년에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로 파견되었던 김기수가 『일동

10) 강민기의 논문에는 이 기록의 명칭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당시 사절단의 일행이었던 야나가와 카네사부로(柳川兼三郎)의 일기를 지칭한 듯하다.

기유(日東記游)』와『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라는 책에서 일본의 박물관을 언급하면서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강민기 2002). 『수신사일기』에는 ‘박물관’에서 “고금의 기이한 물건”과 동식물 등의 “살아있는 것”을 관람한 대목이 나오며, 『일동기유』에는 ‘박물관(博物院)’에서 본 여러 물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강민기, 2002: 41-42). 이후 1881년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이 당시 동경에서 개최 중이던 제2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業博覽會)와 박물관을 견학하고 남긴 보고서에 의하여 박물관이란 기관의 기능과 그 관련법규 등이 국내에 자세히 소개되었다(강민기 2002).

이렇게 박물관이란 명칭은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박물관(博物)’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 고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강민기(2002: 37)는 ‘박물관(博物館)’이란 용어에서 ‘박물관(博物)’이란 개념은 진귀한 모든 류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박물관’은 사전적으로는 위나라 장화(張華, 232-300)의 『박물관지(博物志)』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박물관’의 어원을 장화(張華)의 『박물관지』에서 찾고 있다. 물론 강민기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에서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분리하여 그 어원을 중국 고전에서 찾은 것은 박물관의 명칭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박물관(博物)’을 “모든 류의 물품”으로 해석하고 『박물관지(博物志)』를 그 어원으로 보는 강민기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세기 중국 서진(西晉)¹¹⁾의 장화는 당시 지리와 물산, 풍속, 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10권의 『박물관지(博物志)』를 펴냈는데(임동석 2004), 그 내용을 볼 때 이 책은 현대적 의미에서 백과사전에 가깝다. 그러나 강민기(2002: 37)는 『박물관지』에서의 ‘박물관(博物)’의 의미를 “약초(藥草), 동식물(動植物), 천산(天産), 이방(異邦)의 사물 등을 포함한 박학다식”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박물관’이란 용어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그는 ‘박물관(博物)’의 개념을 축어적(逐語的)으로 ‘넓을 박(博)’에 ‘사물 물(物)’로 해석하여 “진귀한 모든 류의 물품을 의미”한다고 보고, 나아가 “박물관은 그러한 진귀한 보물을 모아 보존하는 곳 또는 건물이란 의미”이며 “결국 박물관이란 용어는 소장품의 범주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강민기, 2002: 37).

그러나 중국 고전에서 ‘박물관(博物)’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많은 사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넓은 지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십삼경(十三經) 중의 하

11) 장화(張華, 232-300)는 위(魏)나라(220-265)에서 태어나 서진(西晉) 시대(265-317)에 사망한 문학자이다. 『박물관지(博物志)』가 장화의 후기 저작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화를 서진의 인물로 분류한다.

나이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전으로 알려진 『이아(爾雅)』에는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이 지은 서문(爾雅序)이 있는데, 이 글에서 곽박은 『이아』를 호평하면서 “온갖 사물을 의혹 없이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아』만한 것이 없다 (若乃可以博物不惑多識於鳥獸草木之名者莫近於爾雅)”라고 적고 있다(최형주, 이준영 2001: 7). 이와 같이 『이아』에서는 ‘박물(博物)’이라는 용어가 “많은 사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춘추좌전(春秋左傳)』의 소공 원년(昭公元年) 편에는 『박물지』의 편찬보다 앞선 춘추시대(春秋時代) 기원전 6세기경에 진(晉)나라의 평공(平公)이 정(鄭)나라의 재상이었던 자산(子產)을 일컬어 “사물에 대해 널리 아는 것이 많은 사람”¹²⁾ 이라는 뜻으로 “박물군자(博物君子)”라는 용어를 사용한 예(晉侯聞子產之言曰博物君子也重賄之)가 등장한다(王伯祥, 1957: 529). 이 “박물군자”의 예에서 볼 때 『춘추좌전』에 등장하는 ‘박물(博物)’의 개념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대 중국어 사전인 『古代漢語詞典』(2002: 108)에는 박물(博物)의 의미가 “여러 일을 훤히 깨달아 앎”으로 먼저 설명되고 다음에 “온갖 사물”로 설명이 되어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 사전인 『中韓詞典』(2001: 177)에는 그 의미가 “박식(博識)하다. 두루 많이 알다” 또는 “동물·식물·광물·생리 등 학과(學科)의 총칭”¹³⁾라고만 정의되어 있다. 중국어 대사전인 『漢語大詞典』(1990: 910)에는 박물(博物)의 의미가 자세히 나오는데 첫째로 “여러 일을 훤히 깨달아 앎” 그리고 “온갖 사물을 가르침” 및 “학과의 총칭”이라고 설명이 되어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중국어에서 박물(博物)이라는 단어가 고대에는 ‘넓은 지식’과 ‘많은 사물’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넓은 지식’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많은 사물’이라는 뜻도 포함하며 ‘학문의 명칭’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박물(博物)’이라는 단어의 핵심개념은 ‘사물’이 아닌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박물관(博物館)’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본 새로운 기관에 한자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박물(博物)’이라는 단어에 ‘건물(館)’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현대 일본어사전인 『廣辭苑』(1998: 2129)에는 ‘박물(博物)’이 “많은 사물에 정

12) 王伯祥(1957)는 이를 “사물에 박식한 사람(博識事物之人)”으로, 신동준(2006)은 “사물을 널리 변식하는 인재”로 해석하였다.

13) 『中韓詞典』(2001)에는 학과의 명칭으로서 ‘박물’이 일본어에서 차용된 용어로 설명되어있다.

통합”, “만물박사” 또는 “박물관학의 약칭”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다른 일본어 사전인 『角川新字源』(1975 : 142)에는 그 의미가 “많은 사물에 정통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나와있다. 『日本國語大辭典』(1975: 187)에는 일본어에서 ‘박물관(博物)’의 의미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앞에 나온 두 가지 의미 이외에 “명치(明治), 대정(大正)시대 및 소화(昭和)시대 초기까지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동식물 및 광물에 대해 가르치는 학과의 이름”으로 쓰였다고 설명되어있다.¹⁴⁾ 이와 같이 19세기 후반의 일본어에서도 ‘박물관(博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주로 ‘지식’에 관련하여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어에서도 ‘많은 사물’은 이 단어의 부차적인 의미였는데, 중국어와는 달리 일본어 사전에는 박물관(博物)의 의미로서 ‘많은 사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물관(博物館)이라는 용어가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물관(博物)’의 의미를 중국어에 나타나는 일부 사용례를 빌어서 축어적으로 “많은 사물”로 해석하기 보다는, 어원적으로 중국어에서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일본어에서도 그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 “박식하다, 두루 많이 알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단어 원래의 의미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어의 기원도 『박물관지(博物志)』보다 더 앞선 시대의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나타난 “박물관자(博物君子)”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박물관에서의 ‘박물관(博物)’이라는 단어의 의미 역시 ‘다양한 사물’이 아닌 ‘사물에 대한 넓은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¹⁵⁾

그러므로 동양에서의 ‘박물관(博物館)’이라는 용어는 그 어원을 고려하여, 이를 “진귀한 보물을 모아 보존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물에 대한 넓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¹⁶⁾ 따라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소장품의 범주’보다는 소장품과 관련된 ‘지식의 범주’에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박물관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그 소장품의 ‘수집이나 보존’을 위한 기능보다는 소장품에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14) 일본의 연호 별 시기는 다음과 같다. 명치(明治:1868-1912), 대정(大正: 1912-1926), 소화(昭和: 1926-1989).

15) 물론 당시 일본에서 박물관의 성격과 기능이 이러한 어원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16) 나아가 현재 서구에서는 지식 중심의 박물관 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유물 중심의 박물관 문화에서 벗어나 지식중심의 박물관으로의 정체성과 위상이 확립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서구에서 박물관(museum)이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뮤즈 여신의 신전인 무지온(Mουσείον)이란 장소에서 비롯되었다. 문학과 예술을 관장하는 뮤즈 여신들을 위한 신전인 무지온은 예술품의 관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는 현대 박물관의 기능과도 일정 부분 그 맥락을 같이한다. 뮤즈여신들을 위한 축제가 학교에서 열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학교 또한 무지온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무지온라는 명칭은 고전(古典) 그리스 시대부터 그리스 전역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무지온을 박물관의 효시라고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무지온은 방대한 양의 도서를 소장한 당시 최대 규모의 연구소 또는 학사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문학과 예술, 과학 등을 관장하는 뮤즈여신의 신전이라는 특성상 그리스의 무지온은 본질적으로 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지온이라는 명칭은 로마시대에 이르러 라틴어로 무제움(Museum)이라고 번역이 되었으나 그 기능은 현재의 박물관과는 달리 철학적 토론의 장소였다. 그러나 로마시대에도 신전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였고 수집된 여러 유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따라서 로마시대에도 명칭이나 기능적으로 박물관과 연관된 기관들은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박물관과는 구별되는 그 기본적인 기능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의 무지온과 로마의 무제움은 교육의 장소이자 연구의 장소였다.

무제움이라는 라틴어 용어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예술작품의 수집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다른 이에게 공개하여 전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르네상스 시대에 사용된 무제움이라는 용어 역시 어느 정도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고 보겠다. 1683년에 영국 옥스포드에 설립된 애쉬몰 박물관(Ashmolean Museum)이 현대적인 의미의 기관으로서 처음으로 박물관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18세기에 비약적으로 일어난 근대박물관의 확립과정을 통하여 예술품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경향이 증대됨에 따라 서구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확장되어 왔다.

동양에서 박물관(博物館)이라는 명칭은 1860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현재 한·중·일 삼국에서 같이 쓰이고 있다. 1860년에 미국을 방문한 일본 사절단은 워싱턴시의 특

허국(Patent Office)과 스미슨 박물관(Smithsonian Institute)을 방문하고 그곳에 전시된 세계 각지의 의복과 신발, 동식물 표본, 가구 등을 관람하였다. 이후 사절단은 방문 보고서에서 이 특허국을 가리켜 ‘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866년에 발간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서양사정(西洋事情)』을 통해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일본에서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1872년에 ‘museum’이 ‘博物館’으로 번역되어 영어/일본어사전에 실리게 됨으로써, 박물관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용어로서 일본어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76년에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로 파견되었던 김기수가 일본의 박물관을 언급한 『일동기유(日東記遊)』와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이다.

이렇게 ‘박물관(博物館)’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방문한 새로운 기관에 한자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박물(博物)’이라는 단어에 ‘건물(館)’을 더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박물(博物)’이라는 단어는 중국 고전에 이미 쓰였으며, 크게 ‘넓은 지식’과 ‘많은 사물’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박물(博物)이라는 단어는 ‘넓은 박(博)’과 ‘사물 물(物)’의 합성자이지만 중국어에서 용례를 분석하면 이 단어의 핵심 개념은 ‘사물’이라기 보다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와는 달리 일본어에는 박물(博物)의 의미로서 ‘많은 사물’이라는 의미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박물(博物)’의 의미를 축어적으로 “많은 사물”로 해석하기 보다는, “박식하다, 두루 많이 알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단어 원래의 의미에 더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어의 기원도 『박물지(博物志)』보다 더 앞선 시대의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나타난 “박물군자(博物君子)”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박물관(博物館)이라는 용어가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물관에서의 ‘박물(博物)’이라는 단어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물’보다 ‘사물에 대한 넓은 지식’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동양에서의 ‘박물관(博物館)’이라는 용어는 그 어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물에 대한 넓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어원적으로 볼 때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소장품의 범주’보다는 소장품과 관련된 ‘지식의 범주’에 중점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박물관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그 소장품의 ‘수집이나 보존’을 위한 기능보다는 소장품에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박물관협회(ICOM)에 따르면 박물관의 목표는 ‘교육과 즐거움’을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그 기관의 궁극적인 존재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박물관들이 그 기관의 정체성을 지식의 생산과 전파를 위한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서양에서 '박물관(museum, 博物館)'이라는 명칭이 성립된 과정을 어원적으로 고찰한 뒤 그 명칭에 나타난 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어원적 연구를 통하여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박물관학에서 역사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다른 연구의 기초 작업으로도 그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논문은 동서양의 박물관사에 대한 비교연구이기도 하다. 박물관의 어원적 기원은 박물관의 기능적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여 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측면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서양의 박물관에 관련된 방대한 사료를 하나의 논문으로 정리하기에는 시간 및 지면상의 제약 따르기 때문에 논문의 주제에 맞추어 서양에 경우 박물관(museum)의 어원적 기원이 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기관들에 대한 명칭사(名稱史)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고, 동양의 경우는 박물관(博物館)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는 19세기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그 용어에 대해 문헌상의 용례연구(用例研究)를 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기능적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고 부득이하게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와 기관들이 누락된 점이 있다. 박물관의 기능적 역사, 특히 박물관이 교육기관으로서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다루기로 하겠다.

■ 참고문헌 ■

- 강민기, 2002. ‘博物館’ 이란 용어의 성립과정과 제도의 한국도입. 『美術史學報』 제17집. 33-58.
- 대영박물관 저·서원주 역, 2004. 『대영박물관(한국어판)』. London: The British Museum Press.
- 이난영, 2006. 『博物館學入門』. 서울: 삼화출판사.
- 이보아, 2000. 『박물관학 개론』. 서울: 김영사.
- 이인숙, 2005. 『박물관과 문화산책』. 서울: 집문당.
- 장화 저·임동석 역(2004). 『박물관지』. 서울: 고즈윈.
- 전진성, 2004. 『박물관의 탄생』. 서울: 살림.
- 조지 엘리스 버코 저·양지연 역, 2001.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서울: 김영사.
- 좌구명 저·신동준 역, 2006. 『춘추좌전』 3. 서울: 한길사.
- 최석영, 2004. 『한국박물관의 근대적 유산』. 서울: 서경.
- 최형주, 이준영 편, 2001. 『이아 주소(爾雅 注疏)』. 서울: 자유문고.
- 康寔鎭, 南德鉉, 李相度, 張皓得 編, 2001. 『中韓詞典』. 牡丹江: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古代漢語詞典 編寫組 編, 2002. 『古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 羅竹風 編, 1990.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 王伯祥, 1957. 『春秋左傳讀本』. 北京: 中華書局.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室編, 2002.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 小川環樹, 西田太一郎, 赤塚忠 編, 1975. 『角川 新字源』. 東京: 角川書店.
- 新村出 編, 1998. 『廣辭苑(第5版)』. 東京: 岩波書店.
- 日本大辭典刊行會 編, 1975. 『日本國語大辭典』 16. 東京: 小學館.
- Aeschines, 1919 [345 BC], ‘Against Timarchus’ in The Speeches of Aeschines, trans. C. D. Adam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Alexander, Edward P., 1996[1979], Museums in 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Functions of Museums, Walnut Creek, California: AltaMira Press.
- Ambrose, Timothy and Crispin Paine, 2006, Museum Basics (2nd ed.), London: Routledge.
- Bazin, Germain, 1967, The Museum Age, trans. Jane van Nuis Cahill, New York: Universe Books.
- Burcaw, G. Ellis, 1997, Introduction to Museum Work (3rd ed.), Walnut Creek, California: AltaMira Press.
- Casson, Lionel, 2001, The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Hornblower, Simon and Antony Spawforth (eds), 2003,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COM, 2001, ICOM statutes. (<http://icom.museum/statutes.html>, 2nd August 2007).
- James, Vanessa, 2003, The Genealogy of Greek Mythology, New York: Gotham Books.
- Jones, Henry Stuart, 1940,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Charlton T and Charles Short, 1879, A Latin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Geoffrey, 1992, 'Museums and their precursors: a brief world survey' , in John M. A. Thompson (ed.) Manual of Curatorship,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 Robinson, Cyril E., 1929, A History of Greece, London: Methuen & Co.
- Witcomb, Andrea, 2003, Re Imagining the Museum: Beyond the Mausoleum, London: Routledge.
- Woodhead, P. and G. Stansfield, 1994, Keyguide to Information Sources in Museum Studies (2nd ed.), London: Mansell.
- Yanagawa, Masakiyo, 1937, The First Japanese Mission to America (1860): Being a Diary Kept by a Member of the Embassy, trans. Fukuyama Junichi and Roderick H. Jackson, Kobe, Japan: J. L. Thompson and Co.

■ 국문요약 ■

이 연구에서는 동서양에서 박물관(museum, 博物館)이라는 명칭이 성립된 과정과 각 명칭에 나타난 교육적 함의를 어원적으로 고찰하였다. 영어의 ‘museum’과 같이 유럽에서 ‘박물관’을 지칭하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신전인 무지온(Mουσειόν)에서 비롯되었고 이곳에서는 예술품이 전시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로마시대에 이 용어는 라틴어로 무제움(Museum)이라고 번역되었다. 로마의 무제온은 현대의 박물관과는 그 성격과 기능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이를 박물관의 어원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의 이 기관들이 연구 및 교육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은 현대 박물관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제움이라는 용어는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예술작품의 수집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이 용어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기관의 명칭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7세기 영국에 세워진 애쉬몰 박물관(Ashmolean Museum)이었다. 한·중·일 삼국에서 쓰이는 ‘博物館’이라는 명칭은 1860년에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방문한 기관을 설명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박물관’이란 용어는 김기수가 1876년에 쓴 『수신사일기(修信使日記)』에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박물(博物)’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국 고전에서 유래되었으며,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쓰인 “박물군자(博物君子)”를 그 최초의 사용례로 볼 수 있다. ‘박물(博物)’이라는 단어는 ‘넓을 박(博)’과 ‘사물 물(物)’의 합성자이지만 고대 및 현대중국어 그리고 근현대일본어에서 ‘박물(博物)’은 ‘많은 사물’보다 ‘두루 많이 알다’의 의미가 강하였다. 그러므로 ‘박물(博物)’의 핵심개념은 ‘사물’보다는 ‘지식’과 더욱 관련되어 있으며, 어원적으로 볼 때 박물관의 역할 역시 그 ‘소장품’보다는 이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박물관(博物館, museum), 博物, 명칭, 어원, 교육, 지식

■ ABSTRACT ■

Etymology and Educational Implication of the Term of 'Museum(博物館)' in Europe and East Asia

Suh, Wonjoo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implication in the term, 'museum(博物館)', in Europe and East Asia. This paper endeavours to trace the etymological history of the terms respectively. In Europe, the 'museum' was originated from 'Mouseion (*Μουσείον*)', the ancient Greek temple where art objects were known to be displayed. In the Roma era, this term was translated into Latin as 'Museum'. Given that the Roman Museum played a different role from current museums, the term is more an etymological origin rather than the functional origin of the modern institution. However, the Greco-Roman 'museums' had an educational role such as teaching and research which is common to the museum of today. During the Renaissance, the term, museum, started to be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art works, and, the Ashmolean Museum in the seventeenth century England became the first example of using the term as a modern institutional concept. On the other hand, 'Bakmoolgwan(博物館, museum)', the term commonly used in Korea, China and Japan, was originated from Japan in 1860 and introduced in Korea in 1876 by Ki-Soo Kim in his book, "the Observation Report (修信使日記)". However, the word 'Bakmool(博物)' was originated from the Chinese ancient literatures such as "Chun Qiu Zuo Dian (春秋左傳)". The word 'Bakmool(博物)' is a combination of two words 'extensive (博)' and 'matter (物)'; however, the whole word tends to mainly refer to 'wide knowledge' than 'many objects' in Chinese and Japanese. In other words, the core concept of the word 'Bakmool (博物)' would be 'knowledge' rather than 'objects'. Therefore, given the etymology of the term, museum (博物館)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knowledge than objects and the role of the museum should be emphasised in regard to 'research and education' rather than 'the collection'.

■key words■ museum(박물관, 博物館), Bakmool (博物), etymology, education, knowledge